

전남도, 2029년까지 연안정비 본격화

정부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전국 최다 89곳 반영 13개 시·군 2970억 투입 연안보전·친수연안사업 추진

정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전남 도내에서는 여수시 등 13개 시·군 89개 지구 2970억원 규모의 연안보전 및 친수연안 사업이 반영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 이번 제3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올해부터 시급성 등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연차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안보전 사업'은 재해완충구역 확보와 돌체 설치, 파랑 저감 및 포락 지반 보강 등 연안 침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목포시 대반동지구 등 79개 지구에 2434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친수연안 사업'은 친수공원, 해안산책로 등 연안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완

도군 죽도지구 등 10개 지구에 53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지구는 지난 2016~2018년까지 실시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침식우려구역으로 나타난 지역 등이다. 현재 연안침식 모니터링은 전남도내 연안 65개소를 포함해 전국 25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태풍의 발생 빈도와 발생 강도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6743km)의 관리·보전을 위한 연안침식 모니터링과 연안침식 현상 파악 등을 통해 침식 심각 연안지역

을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 시킬 계획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 기후변화 등으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다"며 "연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연안지역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이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공간이 되도록 침식원인별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67개 지구에 대한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전기차 326대 추가 보급

15일부터 신청...출고 순 지원
광주시는 전기 승용차 262대와 이륜차 64대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월 승용 272대와 화물 70대 등 전기자동차 342대, 전기 이륜차 86대를 공모했다. 신청 자격은 광주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과 단체 등이다. 출고 순으로 지원하며 승용차는 15일, 이륜차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전기 자동차 차종은 승용 24종, 초소형

승용 4종 등 11개사 28종이다. 전기 이륜차는 경형 22종, 소형 8종, 대형 11종으로 24개사 41종이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한 대당 650만~1400만원,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330만원이다. 전체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만전

다음달 1일 실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 등 활발

도로, 공원 등 조성 계획에도 해당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등 관련 행정절차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필수 집행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절차에 돌입해 이날 현재 도로는 ▲해제 653곳(1.5km) ▲실시계획인가 49곳(0.35km)이며, 공원은 ▲해제 23곳(0.5km) ▲실시계획인가 27곳(7.3km)을 완료했다. 시와 자치구는 다음달 1일 전까지 추가 도로, 공원 등 50곳(0.45km)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관내 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로 활용하기로 해놓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앞서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광주시 재원 외에도 토지은행제도와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집행 노력을 기울여 도로와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향후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정보체계에 반영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말 기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87%로, 전국 평균(84%)과 서울(83%), 부산(72%) 등 타 특·광역시 대비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학실 "체육회장 출연금 줄이는 꿈수 규정 무효" 임미란 "시립수목원 내 수춘천 생태하천 복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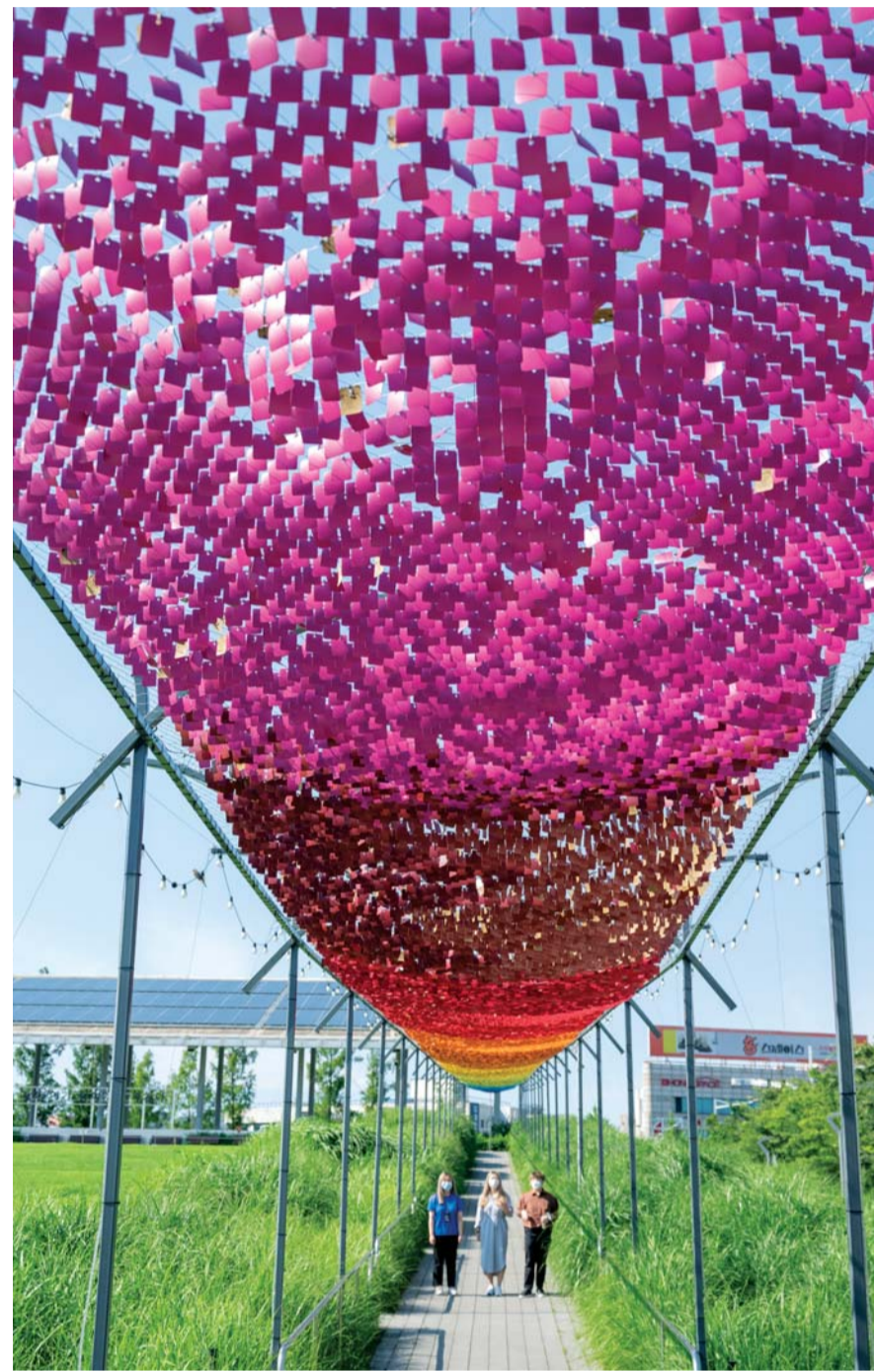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



김학실 시의원 임미란 시의원

광주시 체육회가 규정을 바꿔 회장의 출연금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광주시의회에서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시 체육회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회장의 출연금 삭감 문제 등의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학실(광산구3) 의원은 15일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1기 광주시 체육회장의 출연금 및 위원회 권한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 체육회의 특별위원회 성격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규나 지침을 제외한 각종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하는 것이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지적했다. 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 이상씩 총 6억원을 납부한다'는 회장의 출연금 관련 규정을 '임기 첫해에만 2억원 이상 출연한다'고 바꿨다. 김 회장이 당선 후 출연금 납부를 미루다가 규정 개정으로 출연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출연금을 내지 않으려는 꿈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회장은 문제가 제기되자 매년 2억원씩 임기 내에 출연금 6억원을 모두 내겠다고 약속했다. 출연금의 사용처도 자신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지역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이 이뤄지는 시의회 본회의장에 김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회장은 출연금 납부를 약속

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임미란(남구3) 의원은 "광주시립수목원을 관통해 흐르는 수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28일 착공한 광주시립수목원 설계에는 수목원을 관통하는 700m 구간의 수춘천 구간의 생태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새로 들어설 수목원과 함께 수춘천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춘천은 향동제 저수지에서 배수관을 통해 흐르는 하천으로 총 길이 5.6km로, 하천폭은 15~17m에 이르지만, 비점오염원과 생활 오·폐수와 악취 등으로 하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석용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수춘천 전체를 정비하는 데 2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예산을 반영해 우선 일부만이라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 주변 부지에 2021년까지 국비 30억원·시비 400억원을 투입해 시립 수목원을 조성한다. 2009년 조성이 결정됐지만, 사업비, 문화재 시굴 조사, 토지 매입 등으로 11년 만에 착공하게 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바람따라 움직이는 하늘마당 'Scale'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손주희 건축가 협업 프로젝트 'Scale' 작품전

1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리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공미술 프로젝트 'Scale'은 ACC하늘마당의 하늘과 길 사이에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작품이다. 라미네이트 샘플 컬러칩으로 만든 작은 픽셀들이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면서 그 경계는 때론 닫히고 때론 열려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경계넘어의 하늘을 새롭게 보게끔한다. 전시는 2021년 5월까지 열린다. /최혜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공무원교육훈련 평가' 최우수

전남도가 행정안전부의 올해 '공무원교육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무원교육훈련 평가'는 역량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교육훈련 시책들을 평가해 시상한 제도다. 전남도는 신규자 역랑교육을 비롯 공공·민간 연구기관과 교류 활성화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규자과정의 '공직생활 마인드 셋'과 도와 시·군이 소통해 함께 역랑을 키우는 '협업 네트워크 강화 교육모듈'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목포대와 협약을 맺어 운영했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핵심 프로젝트 과정은 직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중앙부처와 기업, 타 지자체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정책소풍' 역시 전남도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기관표창과 중앙 장기교육과정 기회 확대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무역랑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역랑을 키우고 정책의 효과를 높여 도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